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최 병 록 (수질개선기획단 총괄기획과장)

1. 수질개선기획단의 설치경위 및 근거

맑은 물을 공급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 1차적 책무이며 국민생존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물사정은 날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으며, 우리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식수원 확보마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특히, 최근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상수원인 팔당호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권 주민들로부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며, 그밖에 주요상수원인 금강 대청호, 섬진강 주암호의 경우는 1.2ppm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낙동강 물금 등의 경우에는 수질목표(1~2급수)보다 미흡한 실정이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맑은 물 공급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여 왔지만, 오염물질의 급속한 증가에 비해 환경기초시설의 부족(하수처리율 55%), 물관련 기구 및 법규의 미흡, 국민인식 부족 등으로 수질개선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에서는 '96. 8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물관리종합대책 ('96~2011)을 수립·확정하고, '97. 1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국무총리훈령 제344호), 수자원 확보와 수질개선사업을 통합·조정하여 물관리종합대책을 근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였다. [수질개선기획단]은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의 운영을 보좌하고, 각 부처의 수질개선 및 수자원확보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정토록 대통령훈령 제64호에 의거 '97. 2월에 발족하였다.

2. 물관리정책방향 및 기본원칙

정부의 물관리정책에 대한 기본입장과 정책방향은 다섯 가지 일반원칙에 따라 추진해 나가고 있다.

첫째, 모든 물관리정책 및 실천계획은 현장중심의 객관적사실에 기초하여 수립한다는 [사실의 원칙]이다. 기존에는 물관련대책 수립시 현장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없이 탁상공론적인 정책추진도 없지 않았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금년 5월말에 완료되는 한강·낙동강 수계환경기초조사에 이어, 금강과 영산강(섬진강 포함)의 경우에도 '98년부터 수계전체의 수량 및 수질에 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이 기초자료를 토대로 [수질오염저감모델링]을 개발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과학적인 수질관리개선계획을 수립·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기관·국민이 함께 하는 [참여의 원칙]이다. 물관리 정책수립에 있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전문가, 지원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대책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관계부처장관과 해당지역 광역자치단체장으로 구성된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그리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물관리정책조정자문위원회](표 참조),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개 연구기관(그림 참조)으로 구성된 [지원연구기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수계별로는 [물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지역간 물문제를 협의해 나가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다수의 기관이나,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논의과정에서 정부는 [물은 곧 생명]이라는 가치기준을 최우선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지역간의 물문제를 원만히 해결하려

■ 수자원 현장 · 공공

국무조정실 수질개선기획단

고 한다.

셋째, [공공성 · 전문성 · 과학성의 원칙]이다. 물관리는 지역주민의 이해와 직결되고 원인자 및 수해자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아 합리적인 정책수립이 어려운 경우가 흔히 있다. 따라서 수질개선정책 및 실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공공성 · 전문성 및 과학성을 중시함으로써, 지역정서나 집단민원 등에 좌우되는 정책수립이 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넷째, [체계성 및 통합관리의 원칙]이다. 각 부처의 독자적 정책추진으로 발생하는 예산의 낭비나 사업의 중복을 막기위하여 물 수요와 공급, 수량과 수질분야의 통합관리를 통해 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물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 상호간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정비하고, 수계별, 권역별, 지천별로 물관리가 되도록 기구 및 기능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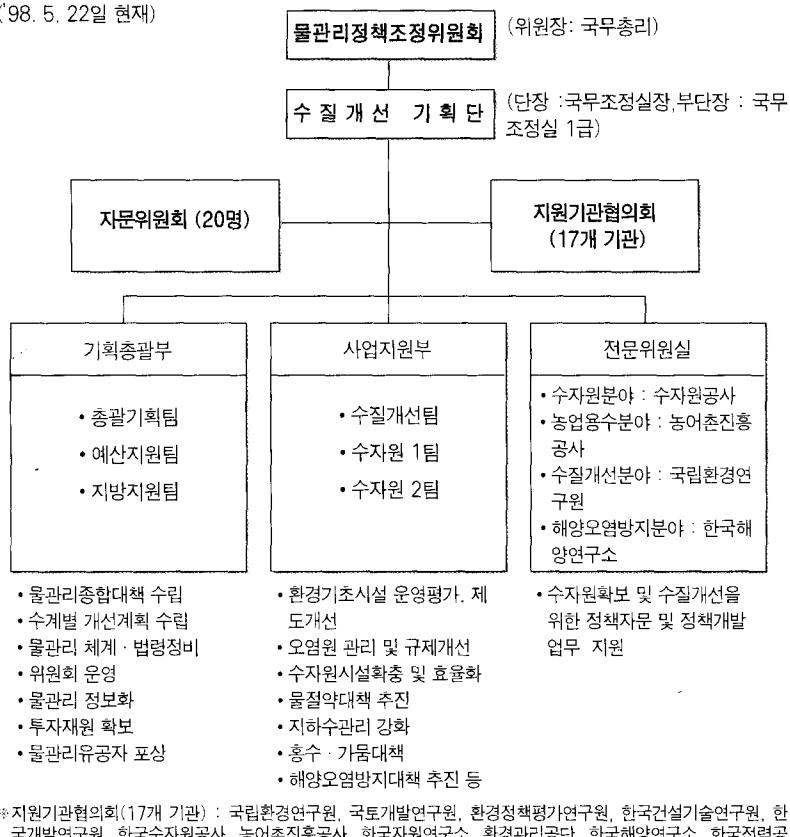
다섯째, [책임성의 원칙]이다. 수질오염 원인자는 반드시 수질오염방지, 회복 및 피해 구제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또 수질개선으로 혜택을 입는 수해자는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비용과 책임체계를 명확히하고, 상수원 등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규제되는 지역주민에 대해서 규제에 상응한 지원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앙부처 · 자치단체의 수질개선노력을 기관별로 평가하여 우수한 기관, 공무원

(98. 5. 22일 현재)

및 관련단체에 대해서는 적절한 포상이 이루어 지도록 할 방침이다.

3. 수질개선기획단의 조직 및 업무현황

수질개선기획단은 '97. 2월 설치당시 기획총괄부, 사업지원부, 평가부 등 3부(총 32명)로 구성되어 있던 조직을, 한강 등 4대강 환경감시대 발족에 이어 새 정부출범시 조직을 갑작개편하여 현재 조직은 2부 1실(25명)로 되어 있다. 수질개선기획단 단장은 국무조정실장(현재 정해주 장관)이 겸직하고 있으며, 부단장은 국무조정실에서 파견된 1급 공무원(현재 유정석 차관보)으로 보하게 되어 있다. 기획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관계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정부투자



그림

기관 또는 출연연구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된다. 기획총괄부(부장은 국무조정실 송유철국장)에는 기획총괄팀(국무조정실 최병록과장), 예산지원팀(재정경제부 윤기상과장) 그리고 지방지원팀(행정자치부 채용생과장)이 있고, 사업지원부(부장은 환경부 고재영국장)에는 수질개선팀(환경부 신판호과장), 수자원1팀(건설교통부 이봉희과장) 그리고 수자원2팀(농림부 조규담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위원회는 농어촌진흥공사(서영제 박사), 한국수자원공사(이광만 박사), 환경개발연구원(이재관 박사) 그리고 해양연구소(정경호 박사)에서 파견된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수질개선기획단의 조직 및 구성, 각 팀이나 전문위원회의 업무분장은 그림과 같다.

4. 주요추진실적 및 향후업무계획

수질개선기획단은 '97년도 한해 동안 물관련 제도 개선, 재원확충 등 물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는데에 중

표. 물관리정책조정자문위원회 위원명단

분야	성명	소속	직책
수질개선 분과위원회	柳在根	국립환경연구원	수질연구부장
	李相珉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申恒植	한국과학기술원	교수
	金相種	서울대학교	교수
	韓光錫	한국종합엔지니어링	부회장
수자원확보 분과위원회	金光默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鄭炳昊	농어촌진흥공사	농어촌연구원부원장
	高錫九	한국수자원공사	특수사업본부장
	李太英	연세대학교	천문대기학과교수
	韓明洙	한양대학교	교수
투자조정 및 재원확보 분과위원회	林成彬	임성빈공인회계사	대표
	崔智龍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책임연구원
	成翼煥	한국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
	金泰由	서울대학교	교수
	柳鍾星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법령 및 제도개선 분과위원회	尹龍男	고려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교수
	姜成哲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朱成民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李之松	현대건설	부사장
	崔列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였다. 주요 추진실적으로는 먼저 [상수원수질개선특별조치법안] 및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안] 제정을 추진하고, 부처간·이견을 조정하였다.

그밖에도 물관리 추진체계 구축 및 수질개선 공감대 형성을 위해 중앙부처 수자원공사 등 관련기관 시·군·부단체장·담당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총 5회에 걸쳐 4대강 수계별·연안역·지하수관련 전문교육 및 현장시찰을 실시한바 있다. 또한, 물관리 종합대책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서는 지방양여금 세입규모 확대와 배분비율 조정을 통해 2005년까지 총 5조 5천억원 규모의 부족재원 확충방안을 마련하고, 시화호, 가두리양식장, 폐탄광 등 주요 현안과제를 점검하고 대책을 추진하였다.

최근에는 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팔당호 수질개선 대책을 금년 8월말까지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경기도 등 해당 시·도에 [팔당호 등 한강 수계 상수원 수질관리특별대책 수립에 관한 국무총리 지시(98. 5. 13)]를 시달한 바 있다. 또한 지난 5. 20일에는 국무총리주재 [물 관리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새정부가 국정의 주요과제로 추진할 '98년도 [물관리종합대책]을 심의·확정하였다. '98년도 [물관리종합대책]은 총 122개 실천과제(하천·호소 80, 해양 42)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며, '98년에 투자되는 예산은 국비·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수자원확보 및 공급대책 사업(32개 과제)에 2조 8천억원, 수질개선대책 사업(48개 과제)에 2조 5천억원, 해양 오염방지사업(42개 과제)에 7,500억원 (수질개선대책사업과 일부중복) 등 총 5조 3천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된다.

'98년도 물관리종합대책은 긴축재정 운영기조 등 여건변화를 감안하고, 물관련과제·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되었으며, '98년도 [물관리종합대책]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 합리적인

물수요 추정으로 수자원 수요·공급관리대책을 상호 연계 추진하고, 수량·수질관리를 통합관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물관리정책을 대기·폐기물·자연환경정책과도 연계해서 운영한다. 과학적 수질관리모델에 의거한 수계별·권역별·지천별 물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장중심의 과학적·전문적 해결방안을 강구한다. 수질오염관리정책을 사후적·감독적 방식에서 사전적·예방적 방식으로 전환한다. 기존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상의 문제점을 전면 재검토하여 운영 정상화방안을 강구하고, 신규시설 확충시 신기술을 적극 도입한다. 원인자 부담원칙 외에 수의자 부담 원칙을 도입하여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을 확충한다.

수계 유역별로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민간 정책 제안기능 및 감시체계를 강화한다.

향후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98년도 물관리종합대책을 과학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여 개혁과제 중심으로 강력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10대 정책과제로는 물관련 일선업무의 체계적·효율적 조정, 물관련 법령의 일제 정비, 물관리 정보화 추진, 4대강 수계별 수질개선계획 수립 추진, 오염원의 사전예방 및 규제강화, 환경기초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해양오염방지 시설 확충 및 적조관리 대책, 댐건설 등 수자원 확충 및 관리 효율화, 물관리종합대책 투자재원의 안정적 확보, 자치단체별 추진실적 평가 및 포상 실시 등이다. 물관리 정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정책제안기능을 부여할 계획이며, 한국수자원공사, 농어촌진흥공사 및 국토개발연구원 등 17개 지원연구기관의 정책제안 기능을 활성화 하려고 한다.

또한 4대강 및 연안수계에서의 주요 지역현안과제

를 자치단체가 책임관리해 나가도록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수계별로 지방자치단체장, 민간전문가, 환경단체 등이 참석하는 현장중심의 워크을 개최토록 하고 자체해결을 유도토록 한다. 지역에서 해결이 안되는 지역현안과제는 수질개선기획단이 집중 관리해 나가고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해결해 나갈 예정이다.

끝으로 '98물관리종합대책에 대하여는 중앙부처, 광역·기초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자체실천계획을 수립·자체평가토록 한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는 이를 토대로 반기별로 기관평가를 실시하고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 그 결과를 보고함으로써 우수사례·공무원포상 등 신상필벌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5. 협조의 말씀

수질개선기획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먹는물을 안심하고 마실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뜻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물문제를 과학적·체계적으로 해결하고자 수질개선기획단장 이하 모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나라의 물문제는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우며 가정, 기업체, 환경·사회단체 등 사회전반에서의 참여와 협조가 있지 않으면 안된다. 맑은물과 깨끗한 환경을 지키는 데에는 정부와 국민이 따로 있을 수 없으며, 국민 스스로가 물을 아껴쓰고 수질보전을 생활화할 때에만 빠른시일내 가시적인 수질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관련 전문가 여러분들의 각별한 협조와 물문제 해결을 위한 좋은 의견·충고를 기대한다. ●●●